

이주열의 입에 쏠린 눈... 물가목표·금리 동시인하 시사?

〈한국은행 총재〉

오늘 출입기자단 간담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등 공개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은은 이번주 물가와 관련된 지표를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통화정책 방향 전환(통화긴축→통화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이주열 총재가 25일 예정된 한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물가안정목표를 변경할지, 또 다시 금리인하 '시그널'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은은 올해부터 물가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번이 첫 번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며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한은은 연간 두 차례 발간하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공개한다. 보고서에는 물가 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된다. 경기둔화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은이 현재 물가와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해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로 유지하기로 하기로 했으나 물가 상승률이 계속 0%대를 유지하는 등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5월 0.7%로 1월(0.8%) 이후 5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간 0%대 물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소

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1%로 낮춘 바 있다. 만약 연간 0%대 물가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2015년 0.7% 이후 4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총재가 기준금리 향방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제69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내린 시점은 2016년 6월(연 1.25%)이다. 그 뒤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 3년 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앞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왔다. 이 총재는 불과 2주도 안 된 지난달 31일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되는데 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1일에는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에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 향방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기 때문이다. 양국이 이번 G20회담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총재도 "연준은 가능한 상황을 많이 지켜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G20회담 결과를 보고 미·중 무역협상의 향방을 가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에는 G20 정상회담이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며 "미·중 무역협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소식도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목진원 두산중공업 파워서비스BG장과 나기움 두산중공업 원자력BG장, 마크 레드먼 나와 에너지 CEO(왼쪽부터)가 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원전 운영회사인 나와 에너지와 바라카 원전의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두산중-UAE와 원전 정비사업 계약

두산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UAE 원전 운영회사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 Company)와 바라카 원전의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아부다비 알 다프라 지역에 위치한 바라카 원전 1~4호기 등 총 4기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한 정비 서비스를 5년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원자료를 비롯해 터빈·발

전기 등 핵심 주기를 공급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두산은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10년 이상 참여해 왔다"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원전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바라카 원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네이버'

7.4% 선택... 이유 '성장·비전'
2위 'CJ ENM' 3위 '삼성전자'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네이버가 뽑혔다. 네이버를 선택한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성장 가능성과 비전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금융·은행권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순위권 밖이었다.

인크루트는 알바콜과 공동으로 대학생 92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18일까지 '2019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은 2018년 회계결산 결과 매출기준으로 분류된 150개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중 주주·공기업 29곳을 제외한 121개를 대상으로 했다.

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기업은 네이버(7.4%)로 전체 121개 기업 중 최다득표했다. 네이버는 2015년, 2016년 1위를 차지한 후 이번이 세번째 1위다. 네이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성장, 개발 가능성과 비전



(24.2%)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지율 성비는 남자(32.8%)보다 여자(67.2%)가 두 배 높았다.

2위는 득표율 0.2% 뒤진 ▲CJ ENM(7.2%)이 올랐다. 2017년 3위 첫 진입 이후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 더욱이 2004년 조사 시작 이래 10년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던 ▲삼성전자(6.2%)마저 제쳤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공동 3위에 이어 올해 역시 3위에 꼽

혔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4.4%), ▲대한항공(4.3%), ▲CJ제일제당(4.2%)이 올랐는데, 득표 차가 각 0.1%밖에 불과할 정도로 경합을 벌였다. 4위의 SK하이닉스는 첫 순위진입을, 5위의 대한항공은 3년 만에 10위권에 귀환해 각각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대한항공은 2006년 7위로 진입한 후 11년 연속 톱10, 2014년에는 대망의 1위에 오르며 선방했지만 같은 해 일명 '땅콩회항' 논란 이후 2016년 10위를 마지막으로 순위권 밖으로 물러난 바 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3.6%), ▲포스코(3.4%), ▲현대자동차(3.3%)가 각각 7, 8, 9위를 차지했다. 3개사 모두 그간 지속해서 높은 득표율을 받았던 곳들인 만큼 다시 한번 저력을 확인한 것인데, 특히 8위의 ▲포스코는 2017년 깜짝 1위에 오르기도 했다. 10위의 ▲호텔신라(3.0%) 역시 올해 첫 톱10 진입의 쾌거를 이뤘고, 동시에 '호텔·레저' 업종 역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순위권에 등장하는 나비 효과를 일궈냈다. /한용수 기자 hys@

금투업계 'YG엔터, 투자 쉬어야' 분위기

>> 1면 '연습생 교육비...'서 계속

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엔터테인먼트는 무형자산의 기준도 다르고 매년 비용을 상각하는 속도도 다르다"면서 "주주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JYP 처럼 비용을 즉각 상각하는 보수적인 회계 처리다"고 말했다. 신인 개발비용을 매년 비용으로 털어버리면 향후 신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모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YG

에 대한 투자를 쉬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연초 증권업계가 기대했던 연간 영업이익(150억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어닝쇼크(실적 충격)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YG 불매운동이 회사의 내재가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지만 투자를 잠시 쉬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 "1분기 벌어들인 음반 및 음원 수익만 147억원가량인데 불매운동이 조직화·장기화하면 어닝쇼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약효 3년지속 이례적... 3상 결과 기대"

>> 1면 '신약3상 완료...'서 계속

이 대표는 "단회 투여로 약효가 3년간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며 "임상 3상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아토피피부염 환자수는 약 100만명, 중증도 이상 환자수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퓨어스팀은 우선 국내 중증도 이상 성인환자 10%를 타깃으로

약 1500억원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퓨어스팀의 상용화 이후에는 곧바로 소아용 치료제 생산에 돌입한다. 소아 치료제의 수요는 더욱 폭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소아를 대상으로 임상을 다시 진행해야겠지만, 성인 임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줄기세포치료제보다 저렴하게 출시해 가격 경쟁력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스탬바이오텍은 지난 5월 연간 3만 6000바이알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GM P센터 설립했다. 올해 초에는 SK바이오랜드와 관련 기술전수 계약을 맺어 추가 생산기지도 확보했다.

이 대표는 "강스탬바이오텍은 퓨어스팀에 대한 국내의 관심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대되는 모든 수익은 우리 몫"이라며 "이번 임상 3상 결과에 국내 업계는 물론 글로벌 제약사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자가면역치료제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